

## 나라위해 목숨 바쳤지만...잊혀진 순국

입력 2019.11.18 (08:50) 수정 2019.11.18 (08:58)

아침뉴스타임



[앵커]

이처럼 잊혀졌던 3.1운동 주역들이 뒤늦게 역사에 이름을 새기게 됐지만, 잊혀진 순국선열도 많습니다.

어제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하다 광복이 되는 것도 못 보고 숨진 선열들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갖었는데요.

순국선열 위패를 모신 추모시설이 초라하고 비좁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.

보도에 선재희 기자입니다.

[리포트]

긱은비 내리는 일요일,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.

올해로 80번째, 조선시대 제례 형식으로 치러졌습니다.

[문희상/국회의장/초헌관 : "역사의 뒤안길로 산화해 간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

국민과 민족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."]

순국선열 추모제가 열린 이곳은 독립공원 내 현충사입니다.

추모 공간이 약 188㎡로 워낙 좁다 보니 위패를 다 모시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.

[조세현/순국선열유족회 감사 : "순국선열만 3,500여 명인데 여기 2,800여 분의 위패가 모여져 있습니다. 700분을 모시지 못하고 있어요, 공간이 좁아서."]

["고양이가 다니면서 저 위의 것이 하나가 쏟아지니까 도미노 현상이 돼 밑에까지 다 쏟아진 게 (위패) 15개가 깨져 버린 거예요, 부끄럽지 않느냐."]

2015년, 국가보훈처는 19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 곳을 10배로 증축하고, '독립의 전당'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.

계획대로라면, 이미 지난해에 완공돼 있어야 하지만,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.

[이순규/이강년 의병장 후손 : "독립의 전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아쉽습니다, 솔직히."]

[최진홍/면암 최익현 후손 : "지금부터라도 순국선열들을 잘 모시는 것에서 친일 청산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"]

암울했던 시대, 목숨을 던져 겨레를 구하고자 했던 사람들, 이제 후손들이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.

KBS 뉴스 선재희입니다.



선재희 기자 ana@kbs.co.kr  
기자의 기사 모음